



구원론

성도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1 기도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천하보다 귀하사 하신 한 영혼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찬송 그림에도 불구하고 (133쪽)

3 말씀 읽기 에베소서 1:4-6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4 말씀 이해하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은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엡1:5). 이 교리는 성도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과 다음주까지 이 두 가지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함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조건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자녀는 무엇을 잘하여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저 상대가 자신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로 그를 사랑하며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날 수도 있고, 때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눅15:11-32). 이와 같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성도들은 종종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여, 그분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상과 벌로 갚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행위에 따라서 갚지 않습니다. 자녀를 **아단**치고 **징계**할지라도 그의 행위를 보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와 같다고 하십니다(마7:11). 또 바울은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합니다(롬8:32).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5 문답으로 말씀 이해하기

1.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신 것이 성도를 삼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2. 하나님과 성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그 관계가 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할 때는 을 치고 를 하십니다.
4.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6 삶의 나눔

말씀을 묵상하고 느낀 점을 가족과 함께 나누십시오.

7 함께하는 기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8 주기도문